

도시철도2호선 저심도+반지하·노면 확대 유력

윤장현 광주시장 “임기내 착공, 안전·경제성 우선, 현재 노선 유지” 3대 원칙 밝혀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이 기존 저심도를 중심으로 지상 노면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1일 시청 전 직원을 상대로 한 공감회의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3대 원칙을 밝혔다. 우선 임기내 반드시 착공하고, 시민의 안전과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현재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윤 시장의 이날 언급을 분석해보면 최근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제시한 5가지 대안 중 최소한 3가지는 제외된다.

5가지 대안은 ▲저심도+노면(4.2km)의 원안 ▲저심도 방식에 반지하(9.5km)+노

면(4.2km) ▲1단계(19.86km) 구간은 저심도, 2~3단계(22.04km) 구간은 노면으로 분리 건설 ▲전 구간 노면(트램형) ▲모노레일 중심형 등이다.

원안인 저심도는 예상사업비가 2조4370억원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을 다시 받아야 하는 기존 사업비를 넘어섰다. 따라서 원안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트램으로 불리는 노면전차와 지상고가의 모노레일 방식은 사업비가 각 1조9200억원과 1조4910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기본설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민선 6기가 끝나는 2018년 상반기 착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심도 방식의 기본설계가 90%이상 마무리된데다 이미 수십억원을 사용한 상황이기도 하다.

결국 ‘광주형 건설방식’으로 불리는 저심도를 기본으로 일부 구간을 반지하·노면으로 까는 방식과 1·2단계를 아예 구별해 건설하는 대안 중 한 가지가 선택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순환을 기본으로 한 현행 노선 유지도 10년에 걸쳐 결정된 만큼 다시 조정하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현 노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광주시는 사실상 저심도에 일부 구간을 노면으로 올리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

려졌다. 노면 구간이 어느 정도로 늘어날지가 관심사다.

또 다른 대안인 1·2단계 분리건설 방식은 도시철도 건설 발목을 잡고 있는 푸른길 훼손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정회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란을 이유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윤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임기내 착공은 확고한 신념이다”며 안전과 경제성 최우선, 현재 노선 유지 등 3가지 원칙을 천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숲속의 전남’ 道 산림분야 기관표창 6개 수상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을 민선 6기 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해온 전남도가 2015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사업 분야 등을 올해 산림분야 6개 평가에서 기관 표창을 받았다.

매년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는 나무 심기, 숲 가꾸기, 민간 참여 도시녹화운동, 산림피해 최소화, 사방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 등 7개 세부지표를 평가한다.

전남도는 정부 산림정책 방향에 충실한 것을 비롯해 민간 참여 도시녹화운동과 숲 돌보미사업, 기업 숲 조성 등을 통해 민간 참여도를 높인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득 숲과 경관 숲을 조성하는 등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숲 가꾸기에 나서고 생활권 중심의 사방사업 및 산림 재해 방지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한 것도 주효했다.

전남도는 올해 제9회 녹색도시 우수사례, 제1회 친환경 별채 우수사례, 녹색자금 기관평가 우수상, 제10회 전국 산림생태복원대전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고,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으로 지역 발전사업 우수사례 추진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제2 남도학숙 설계 공모 ‘남도풍경’ 선정

광주시는 서울 은평구에 건립되는 제2남도학숙 설계공모 심사 결과 마인앤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대표 최기성)의 ‘남도풍경’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제2남도학숙은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광주·전남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 은평구 녹번동 86번지에 건립하는 공공학숙(연면적 1만4000㎡·지상 7층·기숙사 304실)다.

올해 3월 전남과 협약해 사업을 진행

해왔으며, 9월에 설계공모를 했다.

최명규(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제2남도학숙 설계공모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을 통해 “남도풍경은 지역과 소통하려는 배지, 효율적인 공간 구성, 리모델링에 대한 가변성 등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내년 4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1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2018년부터 지역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롯데마트 월드컴점 계약 해지하라”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1일 광주시청 앞에서 롯데마트 월드컴점 계약해지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1일 롯데쇼핑(주) 광주월드컴점점의 불법 전대(轉貸·재임대)와 관련한 자체 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주 내에 관련 업체를 고발하고 공유재산 대부계약 취소를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 삼각동 새 교도소 인근 2곳 구치소 부지로 제시

법무부에 현장답사 요구... 문제 해결엔 내년 복합공간 조성 예타 신청

광주시가 구치소 건립지로 새 교도소 인근 두 곳을 제시하고 법무부에 선택을 요청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구치소 건립지로 최근 광주 북구 삼각동으로 이전한 교도소와 가까운 부지 두 곳을 법무부에 제시했다. 시는 민주·인권·평화

복합공간 조성사업의 전제인 구치소 대체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현장답사를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옛 교도소 부지에 구치소를 세우려 했으나 시는 이곳에 민주·인권·평화 복합공간 조성계획을 세우고 법무부에 부지 양도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시가 제시한 구치소 대체부지를 평가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옛 교도소 부지의 양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대체부지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구치소 대체부지 선정, 옛 교도소 부지 양도 결정 등 절차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내년 상반기 예타 조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예타를 통과하면 내년 국비를 신청해 2017년 기본설계 등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옛 교도소 부지 인근 19만 7000여㎡에 국비와 민자 1314억원을 들여 민주인권평화센터, 인권교육훈련센터, 세계인권미술관, 인권평화기념공원, 인권유스호스텔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지방 정가

“시교육청, 지자체 공동 사업 미온적... 학생들 피해”

이은방 광주시의원 주장

이은방 광주시의원(복구 6)은 1일 열린 광주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 등 지자체와 함께하는 사업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원초등학교(가칭)의 경우 교육청과 동구청과 사전 협의가 부족해 개교가 1년이나 연기

돼 내년엔 입학 예정인 학생은 먼거리에서 있는 초등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게 됐다.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상황실로 쓰인 주월초등학교는 학생을 인근 학교에 배정하면서 통학버스 지원비 5억원을 건설사로부터 받지 못해 문제가 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농업위기 속 내년 농업예산 3.1% 감액 편성”

김효남 전남도의원 지적

전남도의회 김효남(해남2)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은 1일 농림축산식품분야 201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전남도 예산은 전년보다 6% 이상 증액된 반면에 농업분야 예산은 오히려 325억원(3.1%)이 감액된 1조102억원만 계상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비준되는 등 전남 농림축산업의 앞길이 불확실함에 도 FTA 대응 방안을 비롯한 신규사업은 극히 적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으로 말초혈관 장애가 발생해 시력이 감소하는 눈의 합병증입니다. 당뇨환자는 정밀안저 검사를 통해 당뇨망막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 방법
중증성 당뇨망막병증이 심해 안구 내 망막출혈이나 유리체 출혈이 발생한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하거나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마일 / 라식 / 라섹 / 백내장 / 녹내장 / 양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백운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필 제150204-중-68156호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 (062)368-1700